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7월 미 민간 고용 약세...7만 3천 개 고용
- Bloomberg: 연준 이사 2명 "금리 동결로 노동 시장 압박 우려돼"

[미국 금융]

- WSJ: 고용 둔화 보고서에 미 국채 금리 하락...금리 하락 예상 커져

[물류]

- WSJ: 글로벌 물류 회사 DSV, "관세 여파로 미/멕시코 투자 줄인다"

[무역전쟁]

- Bloomberg: 미국, 각국 관세 조정율 리스트 발표
- Bloomberg: 트럼프, 멕시코에는 관세 유예 90일 연장
- Bloomberg: 미국, 캐나다에 관세 35%로 인상
- WSJ: 미 주요 파트너들의 관세 합의 사항

[오일]

- Bloomberg: 유가 주간 상승세...미국의 러시아 압박 등으로

[주택]

- YahooFinance: 연준의 금리 동결 후 모기지율은 평균 6.72%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에 4조 자산 돌파
- TechCrunch: 애플, AI 투자 크게 늘리겠다
- WSJ: 미국에서 스위스 시계 더 비싸진다
- Bloomberg: BYD, 경쟁 심화 및 규제 강화로 판매 부진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U.S. Hiring Was Weak in July, With 73,000 Jobs Added **7월 미 민간 고용 약세...7만 3천 개 고용**

- 오늘 금요일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7월 고용은 7만 3천 개. 당초 예상치는 10만 개 였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노동 시장이 약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이전 두 달간의 수치는 총 26만 명 가까이 크게 하향 조정되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고용 증가 폭은 35,000명에 불과해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이다.
- 실업률도 4.1%에서 4.2%로 상승했다.
- 27주 이상 채용되지 못한 숫자는 7월의 경우 1백 83만 개로 전월인 6월 1백 65만 개에서 증가했다.

- 이와 관련 장기적인 실업 증가 현상은 해고는 낮지만 고용주들이 채용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 일자리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WSJ 기사

Bloomberg: Fed's Waller, Bowman Cite Labor-Market Worries for Dissents

연준 이사 2명 “금리 동결로 노동 시장 압박 우려돼”

- 이번 주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을 반대했던 이사인 Christopher Waller와 Michelle Bowman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되면 노동 시장에 불필요한 부담과 압박 리스크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두 사람 모두 금리를 0.25% 인하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이 사람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 노동 시장의 약세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했었다.
- 그러나 파월 의장과 다른 관리들은 노동 시장이 전반적으로 견조하고 금리 조정 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이와 미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Rate-Cut Bets Jump, Treasury Yields Fall after Soft Jobs Report 고용 둔화 보고서에 미 국채 금리 하락...금리 하락 예상 커져

- 오늘 금요일 오전 미 고용 둔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월가 트레이더들은 오는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 CME Group data에 따르면 선물가격은 연준이 다음번 정례회의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을 67%로 예상해 어제 목요일 38%에서 크게 상승했다.
- 오늘 발표후에 단기물 국채 금리는 크게 흔들리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웠다. 10년물 등 장기물 국채 금리도 하락했다.

WSJ 기사

[물류]

WSJ: Logistics Giant DSV Hits Pause on U.S.-Mexico Investments 글로벌 물류 회사 DSV “관세 여파로 미/멕시코 투자 줄인다”

- 글로벌 물류 회사 중 하나인 DSV의 최고 경영자인 Jens H. Lund는 “활발했던 미국과 멕시코 간 물동량 흐름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둔화되면서 이와 관

련된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미국의 멕시코 무역과 관세 정책이 분명해 지는 시점을 기다리면서 양국 간 트럭키 확장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회사는 이같은 불확실한 양국 간의 물동량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30억 불과 33억 불의 운영 수익 가이드언스를 유지하고 있다.

WSJ 기사

[무역전쟁]

Bloomberg: Full List of US Tariff Rates Announced by Trump on Trading Partners

미국, 각국의 관세 조정율 리스트 발표

- 미국은 무역 적자 축소와 관련 수익을 기대하면서 어제 목요일 각 나라와 관련된 상호 관세 조정 비율을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7일후인 8월 7일 12:01am부터 발효된다.
-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관세가 10% 적용되면 중국과 멕시코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List of US Reciprocal Tariffs by Trade Partners

Partners.....August 1 rate.....April 2 rate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Gives Mexico 90-Day Reprieve From Higher Tariffs

트럼프, 멕시코에는 관세 유예 90일 연장

- 트럼프는 멕시코에 관세 협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현 관세율을 90일 연장키로 했다.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협박 후에 멕시코에 여유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 트럼프는 이달 초에 멕시코 대미 수출품에 30%의 관세율 부과를 시사했었다.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의 많은 상품들은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 관세 면제를 받고 있다.
- 트럼프는 그의 소셜 미디어에서 “멕시코와의 협상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과는 달리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며 90일 관세 연장을 밝혔다.
- 이에 따라 멕시코는 3개국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많은 상품들이 관세 면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50%, 자동차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Raises Tariffs on Canada to 35%, Keeps USMCA Exemption

미국, 캐나다에 관세 35%로 인상

- 트럼프는 캐나다 일부 제품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지난 3월 이래 부과한 25%의 관세율에서 10% 상승한 것이다.
- 백악관은 “캐나다가 펜타닐 및 다른 불법 마약 단속에 협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 그러나 미 행정부는 미/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에 적용되는 제품들은 면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북미주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는 미 자동차업체들과 다른 업체들은 관세 면제를 주장해 미 수입 업체들은 상당한 캐나다와 멕시코 산을 관세 없이 들여오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Trump's Tariffs: Where He Started, What He Threatened, Where He Ended Up

미 주요 파트너들의 관세 합의 사항

-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 관세 합의가 이뤄진 국가들의 경우 관세율이 일반적으로 15%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다. 그러나 캐나다에 대해 현재의 25%에서 35%로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세 유예는 8월 중순에 만료된다.
- 유럽연합: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예비 합의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미 수출 제품에 15%로 현재의 10%보다는 높지만 트럼프의 30%의 협박보다는 낮다. 미국 에너지를 향후 3년간 7천5백억 불 수입해야 한다.
- 멕시코: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30%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 3개국 자유 협정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은 현재 관세가 없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10% 관세.
-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현재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35%로 트럼프가 상향 조정하도록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는 멕시코보다 캐나다에 더욱 공세적인 관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10% 관세.
- 중국: 중국에 대해서는 컴퓨터와 애플 워치, 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과거의 여러 관세율을 비롯해 올해 30%의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관세 유예 기간은 8월 중순에 끝난다.
-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15% 관세에 한국은 미국에 조선, 반도체, 바이오테크 등에 3천5백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5천5백억 달러다.
- 베트남: 현재 20%로 관세가 결정됐다. 당초 트럼프가 46% 관세라고 위협했다. 특히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환적(transshipment)하는 경우 40%의 관세 부과.

WSJ 기사

[오일]**Bloomberg: Oil Heads for Weekly Gain as Traders Focus on Russia, US Growth****유가 주간 상승세...미국의 러시아 압박 등으로**

- 석유가 이스라엘-이란 전쟁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데이터 및 관세 발표 이후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화 등의 이유 때문이다.
-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금요일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주간 6% 상승세를 이어갔다.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포함해 여러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는데, 석유는 이번 조치에서 예외로 두었다.
- 또한, 그는 러시아 원유 수입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Bloomberg 기사

[주택]**YahooFinance: Mortgage rates average 6.72% following Fed's continued rate pause****연준의 금리 동결 후 모기지율은 평균 6.72%**

- 연준이 올해 들어 5번째 금리를 동결한 후 모기지율은 이번 주에 약간 하락했다.
- 이번 주 수요일 끝나는 30년 모기지율은 6.72%이라고 Freddie Mac는 밝혔다. 그 전주에 6.74%였다.
- 15년 고정 모기지율은 5.87%에서 5.85%로 떨어졌다.

YahooFinance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Bloomberg: Microsoft Hits \$4 Trillion Market Cap After Earnings Beat****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에 4조 자산 돌파**

- 마이크로소프트가 월가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4조 달러의 자산을 돌파했다.
- 어제 목요일 오전에 8.2%까지 상승해 시장 가치가 4조 1천억 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4조 달러를 이달 초에 기록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들을 위한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모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아웃룩, 엑셀, 워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엔

비디아처럼 대체 서비스가 없다는 강한 포지션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AI와 관련해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놀라운 매출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TechCrunch: Apple plans to ‘significantly’ grow AI investments, Cook says **애플, AI 투자 크게 늘리겠다**

- 애플 CEO Tim Cook이 “AI는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기술 중 하나”라고 말하며 “모든 기기, 플랫폼, 회사 전반에 AI를 접목하고 투자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애플은 그간 AI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Cook는 이에 대해 Apple의 Siri 업데이트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 그는 “아이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AI 기기는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한 바 있다.
- 한편, Apple은 3분기에 iPhone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해 주가가 급등했다.

WSJ 기사

WSJ: Buying a Swiss Watch in America Is About to Get a Lot More Expensive **미국에서 스위스 시계 더 비싸진다**

- 미국 내 시계 수집가들이 지출을 늘림에 따라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했다.
- 미국의 스위스 시계 수입품에는 4월부터 10%의 관세가 부과되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발표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관세율이 39% 인상된다.
- 4월의 관세, 환율 변동, 금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 하락을 막기 위해 시계 브랜드들은 여러 모델의 가격을 인상해야했다.
- 미국 시계 수집가들의 연령대는 평균보다 약 10년 젊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따라 스위스 시계 브랜드의 미국 매출은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 스위스 시계 수출액은 2015년 이후 4분의 1이 증가했지만, 수출량은 45% 급감했다. 애플 워치 출시 이후 시장 점유율을 잃은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BYD Sales Sputter as Competition, Regulatory Scrutiny Grow **BYD, 경쟁 심화 및 규제 강화로 판매 부진**

- BYD의 지난달 매출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중국의 신차 판매는 여름철에 부진하긴 하나, BYD가 연간 목표인 550만 대 판매를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중국은 최근 가격 전쟁을 촉발하는 과도한 할인을 단속하겠다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 BYD의 주요 경쟁사들은 회복세를 보이며 7월 최고치 혹은 월간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BYD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달 60만 2000대를 판매해야한다.
- 중국 승용차 협회는 7월 승용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 7.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6월 대비 11% 감소한 수치이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이전 정부 방침 뒤집어...새 가상화폐 정책 추진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 "디지털 자산 업계 큰 승리"...비트코인은 약세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31일(현지시간)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에서의 미국 리더십'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가상화폐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의제를 홍보하기 위해 2021년에 설립된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행사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